

##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문장 맥락을 활용한 한자 합성어 이해 특성\*

이 유 리\*\* (하늘발달상담센터)

최 소 영\*\*\*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교수)

---

### 〈요 약〉

---

**연구목적:** 학령기에 습득하는 상당수의 단어는 형태론적으로 복잡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장 맥락 내에서 주어지는 낯선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여 이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문장 맥락을 활용하여 희소한 한자 합성어를 이해하는 양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 14명과 일반 아동 16명, 총 3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의미생성과제는 새롭고 낯선 한자 합성어의 의미를 제시된 맥락을 통해 유추하여 구어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2음절 한자 합성어를 구성하는 각 형태소의 의미를 유추하기에 적절한 맥락과 한자 형태소 의미와 거리가 먼 부적절한 맥락을 제공하는 조건을 제작하였다. **연구결과:** 읽기이해부진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두 맥락 조건(적절, 부적절) 모두 수행의 어려움을 보였으며, 두 아동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부적절한 맥락이 주어진 조건에서 낮은 수행이 나타났다. 또한 집단과 맥락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에 따라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한자 합성어 의미를 유추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맥락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읽기이해부진 아동이 다형태소로 이루어진 한자 합성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문장 맥락을 활용하여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어휘 습득과 읽기 이해를 위해 맥락을 단서로 활용하는 중재 전략 및 교육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읽기이해부진, 한자, 합성어, 문장 맥락

---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제 1저자

\*\*\* 교신저자(syc529@dankook.ac.kr)

## I. 서 론

읽기는 크게 음독(encoding)과 언어 이해(language comprehension)로 구성되며 다양한 언어 기술(language skills)을 기반으로 성취된다(Cain & Oakhill, 2006).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를 해독하여 읽는 능력 및 하위 수준의 어휘 기술은 물론, 문법 구조 지식과 같은 문장 기술, 추론, 이해 모니터링(comprehension monitoring), 작업 기억 용량(working memory capacity)과 같은 상위 수준의 언어 처리 기술도 관여한다. 이 때 상위 수준의 기술은 글의 의미 기반 표상을 형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추론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학령기 아동들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안정된 음독 능력을 토대로 읽기가 능숙해진 이후에는 상위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언어 이해의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읽기 이해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대두된다(정미란, 2009; 한정인, 황민아, 고선희, 2018). 이러한 읽기 장애(reading disorders)를 가진 아동들 중, 단어를 해독하는 음독 기술은 적절하지만 읽은 내용의 정확한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일컬어 읽기이해부진(reading comprehension deficits 혹은 poor comprehenders)이라 한다(Stothard & Hulme, 1992).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동일 생활연령의 일반 아동에 비해 단어 읽기, 텍스트 이해, 어휘, 구문, 인지 능력, 작업 기억력, 이해력 등에 결함을 나타내며, 학년 증가와 더불어 습득해야 할 정보의 내용이 점차 많아지고 어려워짐에 따라 읽기 이해의 문제가 학업수행력에도 영향을 미쳐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김순호, 정경희, 2015; 정미란, 2009; Cain & Oakhill, 2006).

학령기 아동들이 학업을 소화함에 있어 근간이 되는 단어 이해 및 읽기 수행을 위한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메타언어 인식(meta-linguistic awareness)을 꼽을 수 있다. 메타언어 인식이란 언어 구조적 속성이나 특성 혹은 언어 자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조작하는 능력으로, 특정한 인지적 수행을 요구하여 말하거나 듣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획득된다(Carlisle, 1995). 메타언어 인식은 크게 음운 인식(phonological awareness), 형태소 인식(morphological awareness), 철자 인식(orthographic awareness)으로 나눌 수 있다(Kuo & Anderson, 2006). 그중에서 형태소 인식은 음운 인식 못지않게 읽기 발달 및 읽기이해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조명한 등, 2014; Deacon & Kirby 2004; Wolter, Wood, & D'zatko, 2009). 형태소 인식 능력은 단어 구성 성분으로서의 형태소에 대한 민감성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어근, 접두사, 접미사와 같은 형태소를 의식적으로 조작하고 단어를 분석하거나 구성하는 능력이다(Jannedy, Poletto, & Weldon, 1994).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형태소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어 형태소를 결합하거나 분리하고 단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이 같은 특성은 해독, 읽기이해, 읽기 유창성의 발달과도 상관을 나타낸다(김선아, 최소영, 2018; 김순호, 정경희, 2015). 형태소 인식 능력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까지 가장 많이 성장하는 음운 인식이나 철자 인식 능력과 달리 고학년에 들어서는 4학년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다(Berninger et al., 2010; Carlisle, 2000). 특히 한국어는 형태소가 풍부한 언어로 학령기 단어

의 상당 부분이 형태론적으로 복잡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은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형태소 인식 능력이 주요하게 기여하는 바, 본 연구는 고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형태론적으로 복잡한 단어 이해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단어는 그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인 단일어(simple word)와 한 단어가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합성어(compound word)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의미를 가지는 단어 내부(sublexical)의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는 ‘코, 허리’와 같이 하나의 단일어를 이루거나, ‘손-톱’처럼 몇 개의 형태소가 합쳐진 합성어를 형성한다(남기심, 고영근, 2007; 이익섭, 2009; 조명한 등, 2014). 따라서 합성어가 어떤 형태소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의미 관계를 인지하는 것은 합성어 이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새로운 어휘 학습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형태적 구조에 대한 인식 능력 결함이 다형태소로 이루어진 합성어 이해의 어려움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선행연구의 대다수는 고유어인 합성어를 위주로 살펴보았다(김선아, 최소영, 2018; 김순호, 정경희, 2015; 심지, 이은주, 2018; 한정인 등, 2018; Carlisle, 2010; Deacon, Kieffer, & Laroche, 2014; Kuo & Anderson, 2006). 첨가어(affixing language)인 한국어에서 합성어의 상당 부분은 한자어(漢字語)이다(정민영, 2000). 한자어는 외래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어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일상생활의 사용빈도는 70%를 넘어서는 등 고유어와 견줄만한 위상을 가진다(조명한 등, 2014). 한자어는 일반적으로 단어를 구성하는 개별 음절이 어떤 한자의 한국어 독음(讀音)과 일치하는 어휘를 가리키는데(김일병, 2005), 한자어 형태소는 1글자 또는 1음절로 실현되며 대부분이 의존적(bound)이다. 즉, 한자어 형태소들은 다른 형태소와 결합된 상태로만 문장 중에 출현할 수 있어 합성어를 구성하는 비율이 높다(조명한 등, 2014). 실제 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6학년 총 18개 과목 교과서에 사용된 개별 한자 수가 2,687자, 총 누적 빈도는 422,022 자이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한자어가 더 많이 사용될 뿐 아니라 그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교과목이 ‘국어’ 및 ‘읽기’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민현식 등, 2003).

한자 합성어의 이해에는 형태소에 대한 조작 능력과 의미 맥락의 활용이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자 합성어의 형태소 분리가 표기보다 의미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 있는데, 한국어 사용자는 대개 한자 합성어를 한글 표기로 접하게 되므로 표기 정보만을 이용하여 구성 형태소를 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남’은 어휘 접속 이전에 ‘미’와 ‘남’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 이를 ‘아름다울 미’, ‘사내 남’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배성봉, 이동훈, 2017). 즉, 한글로만 쓰인 한자 형태소가 복수의 형태소에 대응되는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성어휘집(mental lexicon)의 정보와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맥락 정보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야 한다. 또 다른 까닭은 고유어가 분석적(analytic) 특성을 갖는 반면 한자어는 종합적(synthetic)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자 합성어인 ‘애연가’를 고유어로 표현할 경우 ‘담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구의 형태로 해체되어 나타난다(민현식 등, 2003). 이렇듯 한자 형태소는 고유어에서 다음절이나

구로 표현해야 할 개념을 단일한 하나의 글자로 실현하기에 한자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 내는 합성어는 복잡하고 많은 정보량을 짧은 어형으로 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들의 합성 한자어 이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소 분석과 의미 추론 양상을 종합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읽기이해 능력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대표되는 어휘력은 개별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도 습득되지만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 맥락(context) 속에서 적절한 의미를 유추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Amirian & Momeni, 2012). 맥락은 언어 사용의 외적 상황을 말하기도 하지만 언어 내적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여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 문장과 문단, 텍스트를 포괄하여 일컫는다(강범모, 2014). 맥락을 활용한 어휘 학습은 음운, 통사, 의미적 규칙에 입각한 언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적절한 쓰임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며, 사용의 일반화와 언어 정보(linguistic information)를 이용한 더 진보된 단어 학습 방략을 통해 어휘 습득 및 읽기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김애화 등, 2011; Sternberg, 1987; De Groot & Keijzer, 2000). 그러나 학령기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경우 문장 맥락을 활용하여 기본 의미 외의 확장 의미를 이해하거나(박은주, 황민아, 2018), 유추한 의미를 또 다른 문맥에 적용하는 과제(임연순, 고선희, 황민아, 2019)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읽기이해에 있어 새롭고 낯선 단어를 접했을 시 형태소 분석과 문맥 활용의 요구가 증가하나 읽기이해부진 아동들은 이 같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 더욱이 한자 합성어는 다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이면서 맥락 정보를 활용해야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 특성을 가지므로 읽기이해부진 아동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언어 문제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 단어인 기초 어휘로서 고유어 합성어 위주로 과제를 구성하였고,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과제의 형식이 문장 수준으로 제시되기는 하였어도 문장 맥락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기보다 형태소를 분리, 합성, 변환하는 형태소 조작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차이가 있다(김선아, 최소영, 2018; 김순호, 정경희, 2015). 배성봉, 이광오, 마스다 히사시(201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형태소 인식 능력에 따른 단어 학습 수행의 개인차를 알아보고자 형태소 인식 능력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구성한 뒤 참가자들에게 친숙도가 매우 낮아 새로운 단어라고 가정할 수 있는 희소한 한자 합성어를 문장 맥락 속에 제시하고 의미를 추론하도록 하였다. 문장 맥락을 형태소 분석이 가능한 조건과 불가능한 조건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형태소 인식 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형태소 분석이 가능한 문장 맥락 조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에서 친숙도가 극히 낮은 희소한 한자 합성어의 이해 특성을 비교해보고자 하였으며, 2음절 한자 합성어를 구성하는 형태소 각각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적절한 맥락 조건과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더라도 형태소의 각각의 의미

를 유추하기에는 부적절한 맥락 조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어휘 의미 학습 및 읽기 지도에 형태소 분석과 문장 맥락을 활용함에 있어 경험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 14명 및 일반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아동 집단의 연령을 이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합성어를 이루는 형태소 구조에 대한 인식 능력이 3, 4학년에 가장 많이 성장하여 5, 6학년에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Berninger et al., 2010),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자 합성어 사용의 빈도가 증가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새로운 단어를 접하는 경험 또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1) 부모나 교사의 보고에 의거 신체 및 행동, 정서상의 문제가 없고, (2)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 2판(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 - Second Edition: K-CTONI-2; 박혜원, 2014) 결과 85점 이상으로 정상 범위이며, (3) 읽기 성취 및 읽기 인지처리 능력 검사(Test of Reading Achievement and Reading Cognitive Processes Ability: RA-RCP; 김애화 등, 2014)에서 단어인지 25%ile 이상, 읽기이해 25%ile 미만에 속하는 이들이다. 이는 학습장애 진단 모델인 저성취 모델의 진단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점수가 지적 장애 기준(약 70 이상) 보다 높으면서 학업성취도에서 16~25%ile에 속하는 아동이 학습장애로 진단된다.

일반 아동은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학년을 일치시킨 아동으로 (1) 부모나 교사의 보고에 의거 신체 및 행동, 정서상의 문제가 없고, (2) K-CTONI-2 결과 85점 이상으로 정상 범위이며, (3) RA-RCP에서 단어인지 및 읽기이해 모두 25%ile 이상에 속하는 이들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표 1〉 집단별 연구 참가자 정보

		일반 아동 (n=16)		읽기이해부진 아동 (n=14)		<i>t</i>	<i>p</i>
		M	SD	M	SD		
생활연령(개월)		138.32	7.54	138.71	7.74	-.139	.890
K-CTONI-2		106.69	13.84	98.36	8.48	1.952	.061
RA-RCP	단어인지	109.69	5.91	106.07	5.25	1.760	.089
	읽기이해	108.31	8.82	81.07	8.16	8.737	.000

참가한 아동들의 집단별 상세 정보는 <표 1>과 같다.

각 집단의 학년 및 성별 비율은 읽기이해부진 아동 집단의 경우 5학년 9명, 6학년 5명과 남자 11명, 여자 3명이었고, 일반 아동 집단의 경우 5학년 10명, 6학년 6명과 남 6명, 여 10명이었다. 두 집단은 읽기이해 점수를 제외한 생활연령, 비언어 지능 및 단어인지 수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 과제는 배성봉 등(2016)에서 사용된 한자어와 맥락 문장을 토대로 일부 한자어와 문장을 참가자의 연령대인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으며, 희소한 한자 합성어에 대하여 한자 형태소 의미 유추에 적절한 맥락과 한자 형태소 의미와 거리가 먼 부적절한 맥락을 조 건화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될 목표단어인 희소한 한자 합성어(이하 ‘희소 단어’)는 배성봉 등(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한자어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정의된 ‘희소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에 등재된 의미적으로 투명한 2음절 희소 한자어 300개 중 일반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친숙도를 평정 받아 친숙도가 극히 낮은 것(“이 단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으로 나타난 단어이며, 이 한자어들 중 어떤 것도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조남호, 2002)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단어의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민족문화연구원, 2009)을 참고하였으며, 희소 단어를 2음절로 제한한 까닭은 한자 합성어의 다수가 형태나 의미상으로 안정적인 2음절 단어인데다 이 2음절을 기반으로 또 다른 한자 합성어가 형성됨을 고려한 것이다(정민영, 2000).

1차로 53개의 희소 단어 후보를 선정하여 언어병리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10명에게 친숙도에 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참가자에게 맥락 없이 2음절의 한자어만 제시하고 각 단어에 대한 참가자의 주관적 정의를 2어절의 구문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가자가 작성한 정의를 0-3점(0점: 무응답 또는 완전 불일치, 1점: 일부분만 일치, 2점: 두 개의 의미가 포함되었으나 형태적 구조에 맞지 않음, 3점: 두 개의 의미를 정확히 기술)으로 채점하였을 때, 무응답이거나 정의가 완전 불일치한(0점) 비율이 85.8%, 단어의 일부 뜻을 기술하거나 형태적 구조에 맞지 않게 두 개의 의미를 포함한 경우가(1-2점) 10.3%, 두 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맞힌 경우가(3점) 전체 문항 중 3.9%에 불과함에 따라 53개의 한자 합성어가 성인 수준에서도 친숙도가 매우 낮은 희소 단어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2차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희소 단어에 쓰인 각각의 낱자 한자 형태소에 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형태소 분석 및 의미 맥락을 활용한 아동의 한자 합성어 이해 특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민현식 등, 2003)의 ‘새 교육용 한자 순위’를

바탕으로 최종 회소 단어를 선정하였다. 민현식 등(2003)에서는 초등 교과서 한자 및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이하 교육용 1800자)에 모두 나타나는 것 중에 초등 교과서를 기준으로 빈도가 높은 순으로 새 교육용 한자 1~7 순위를 나누었다. 또한, 한국한자능력검정회 급수별 한자 중에서 4급(초등학생용)까지에 해당하는 한자와 대조한 결과에서도 4급 1,000자에 해당하는 한자가 초등학 교 교과서 한자 목록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자 합성어에 쓰인 한자 형태소가 초등 교과서 기준으로 빈도 10회 이상인 즉, 새 교육용 한자 4순위 이상의 한자 형태소만을 선택하여 총 40개의 회소 단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표 2〉).

〈표 2〉 회소 한자어 목록 (ㄱㄴㄷ순)

감정	보족	실범	조설
기망	복빙	심축	주견
기신	비신	어상	착근
내람	상거	옥설	침적
막설	서보	원입	탐보
만단	석축	음건	편신
매식	소약	자통	풍판
명변	소옥	쟁심	필전
밀모	습용	적면	회곡
백출	시태	조골	흑영

다음으로, 선정된 목표 한자어에 대하여 제공되는 문장의 맥락은 회소 단어의 한자 형태소 의미 추론에 적절한 조건(이하 ‘적절 조건’)과 한자 형태소 의미와 거리가 먼 부적절한 조건(이하 ‘부적절 조건’)의 두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40개의 회소 단어 하나당 3개씩의 맥락 문장이 주어지도록 하였는데, 〈표 3〉의 예시 중 ‘자통’의 경우, 적절한 조건의 맥락 문장은 ‘해결 방법’, ‘공부’, ‘삶의 지혜’ 등을 언급하며 ‘자통’의 ‘통’을 ‘깨닫다’의 의미로 해석하게 한다. 또한 ‘실패를 거듭하다’, ‘책을 읽고’ 등의 기술은 ‘자통’의 ‘자’를 ‘스스로’의 의미로 해석하게 한다. 반면, 부적절 조건의 맥락 문장은 본 연구 과제의 일부이나 해당 문항이 아닌 다른 문항의 회소 단어(‘만단’)와 관련된 것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많은, 여러 가지’와 같은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지만 ‘자통’에 해당하는 한자 형태소 각각의 의미를 유추하기에 적절치 않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맥락 문장은 배성봉 등(2016)의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문장을 참가자 연령인 초등 5, 6학년에게 친숙한 상황으로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고, 일부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민족문화연구원, 2009)에 실린 회소 단어 및 그 유의어의 예문을 참고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 목표 어휘인 회소 단어의 형태소와 맥락이 일치되어 형태소

〈표 3〉 회소 단어와 맥락 조건의 예

	적절 조건	부적절 조건
자통	실패를 거듭하다 해결 방법을 <u>자통</u> 하였다. 공부에 <u>자통</u> 하기를 바라지 않고 좋은 선생님을 찾았다. 많은 책을 읽고 삶의 지혜를 <u>자통</u> 하였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고자 <u>자통</u> 으로 계획했다. 상점에 <u>자통</u> 의 옷들이 그녀를 유혹하였다. 한강의 오염물질을 <u>자통</u> 의 방법으로 없앴다.
주견	영희는 <u>주견</u> 을 당당하게 말하여 박수를 받았다. <u>주견</u> 과 다르다고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 <u>주견</u> 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남에게 잘 속는다.	끝이 <u>주견</u> 된 뭇은 쓸모가 없다. 해안선의 <u>주견</u> 을 따라 조심히 차를 몰았다. 강물이 <u>주견</u> 하여 흐르면서 웅덩이를 만들었다.

의미 추론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 조건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었다.

첫째, 문장 내에 회소 단어의 고유어 및 정의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복빙(얼음으로 되돌아가다)’의 선행연구 문장인 “야외 스케이트장은 복빙된 곳의 얼음의 질이 좋지 않다.”를 한자 형태소 ‘빙’의 고유어인 ‘얼음’을 제외하고 “야외 스케이트장은 복빙된 부분의 상태가 좋지 않다.”로 수정하였다. 둘째, 즉각적으로 유의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관용적 표현은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기신(기력과 정신)’의 문장에서 “환자인 남편보다 부인이 오히려 기신이 빠져 있었다.”는 ‘정신이 빠지다’라는 관용구가 활성화될 수 있어 “환자인 남편보다 부인이 기신이 좋지 않았다.”로 보완하였다. 셋째, 회소 단어의 의미 투명도가 낮은 문장은 삭제하였는데, 문장 내에서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인 경우가 이에 속한다. 선행연구의 문장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착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에서 ‘착근’은 ‘뿌리를 내리다’의 의미보다 ‘어떠한 것이 기반을 잡다’의 비유적 표현으로 쓰여 제외하였다. 넷째, 불필요한 수식어구 혹은 지시 대명사를 제외하여 문장의 길이를 5~7어절 정도로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어상(물고기를 팔다)’의 문장인 “항구에서 농촌으로 왕래하며 어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를 “항구와 농촌을 오가며 어상 활동을 하였다.”로 수정하였다. 다섯째, 회소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성분의 경우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김광해, 2008)를 참고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연령에 적절하도록 1~3등급에 해당하는 어휘(기초 어휘~정규 교육 개시 - 사춘기 이전, 사고 도구어 일부 포함)를 최대한 포함하도록 하였다.

제작된 맥락 문장의 초안은 언어병리학과 교수 1인과 검토를 거친 뒤, 회소 단어를 제외한 문장의 어휘나 구문 구조가 참가 아동 연령에 적합하고 맥락 문장이 회소 단어의 정의에 자연스러운지에 관하여 언어병리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10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총 120개 맥락 문장이 구성되었다. 완성된 문장은 맥락 조건의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A, B 세트로 구성하여 참가자별로 역균형화(counterbalancing) 하였으며, 이 때 A, B 세트의 회소 단어 및 맥락 문장의 난이도는 유사하도록 조정하였다. 즉, A 세트에서 적절 조건에 배정된 회소 단어는 B 세트에서는 부적절 조건에 배정되었고, 결과적으로 한 아동은 회소 단어 40개에 대한 문항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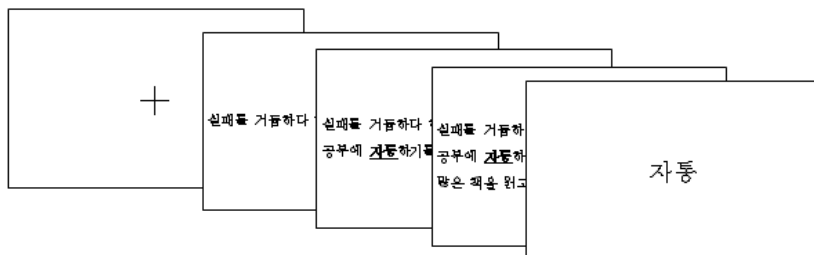
두 수행하지만 20문항은 적절 조건에서 나머지 20문항은 부적절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전체 참가 아동 중 절반은 A 세트를 먼저, 나머지 절반의 참가 아동은 B 세트를 먼저 수행하도록 하였다.

###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의미생성(meaning generation) 과제는 배성봉 등(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참가자 연령에 적합하게 절차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원래 형태는 40개의 희소 한자어를 하나씩 제시하고 참가자가 추론한 단어의 의미를 기술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희소 단어를 3개의 문장 맥락에 따라 해석한 뒤 문항 별로 유추된 희소 단어의 의미를 구두로 산출하게 하였다.

연구는 독립된 장소에서 연구자와 아동이 일대일로 마주 앉아 진행하였으며, 사전 검사와 본 검사로 이루어졌다. 사전 검사에서는 의미 맥락 없이 한 장의 용지에 40개의 희소 단어 목록만을 제시하고 의미를 유추하여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참가 아동의 희소 단어에 대한 친숙도를 확인하고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행을 확인하였다. 이어지는 본 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연습 시행을 3회 실시하여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판단되면 본 과제로 진행하였다. 연습 시행에서 아동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경우 희소 단어의 각 음절을 손가락으로 지시하며 각 형태소의 의미를 알려줌으로써 아동이 목표 단어가 합성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되, 직접적으로 한자 지식을 활용한 형태소 분석이 지시되지 않도록 목표 단어가 한자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본 과제의 목표 단어와 맥락 문장은 노트북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응시점(‘+’) 후 나타나는 문장을 읽고 스페이스 바(space bar)를 누르면 다음 문장이 누적되며 나타나도록 하였다. 3개의 맥락 문장을 모두 본 뒤 화면 중앙에 목표 단어가 나타나면 아동은 앞선 맥락을 통해 유추한 해당 단어의 의미를 2어절 정도의 짧은 구문으로 응답하였다. 참가자의 응답은 연구자가 즉각 기록지에 전사하였고,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검사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과제 시행 화면의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의미생성과제 시행 예시

#### 4. 자료 분석

의미생성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채점 기준은 <표 4>와 같다(0점: 무응답 또는 완전 불일치, 1점: 일부분만 일치, 2점: 두 개의 의미가 포함되었으나 형태적 구조에 맞지 않음, 3점: 두 개의 의미를 정확히 기술). 희소 단어 의미에 대한 응답의 적절성은 주어진 맥락 문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앞선 예시의 ‘자통’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적절 조건의 경우 ‘스스로 깨닫다’가 되나, 부적절 조건에서는 ‘여러 가지’가 된다. 총 40개 희소 단어가 두 조건에 배분되었기에 한 참가자가 조건별로 획득 가능한 점수는 최대 60점(20개\*3점)이었다.

<표 4> 의미생성과제 채점 기준 (적절 조건에서 제시된 ‘자통’의 경우)

	채점 기준	예시
3점	두 개의 의미를 정확히 기술	스스로 깨닫다(알다)
2점	두 개의 의미가 포함되었으나 형태적 구조에 맞지 않음	스스로를 알다
1점	일부분만 일치	깨우치다
0점	무응답 또는 완전 불일치	새로운 선생님

아동이 산출한 2어절 내외의 구문을 전사하여 연구자가 1차 채점한 뒤,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과 임상 경험이 3년 이상인 언어치료사 총 2명을 대상으로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채점 방법 및 기준에 대한 훈련을 거쳐 전체 반응 기록 중 30%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채점자 간 신뢰도를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 채점자 1과 .927, 채점자 2와 .934로 평균 .931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읽기이해 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이 문장 맥락 조건(적절, 부적절)에 따라 희소한 한자 합성어 이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2)을 개체 간 요인으로, 문장 맥락 조건(2)을 개체 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repeated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문장 맥락에 따른 한자 합성어 이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희소 단어에 대한 아동의 배경 지식 및 친숙도와 더불어 문장 맥락 없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는 두 집단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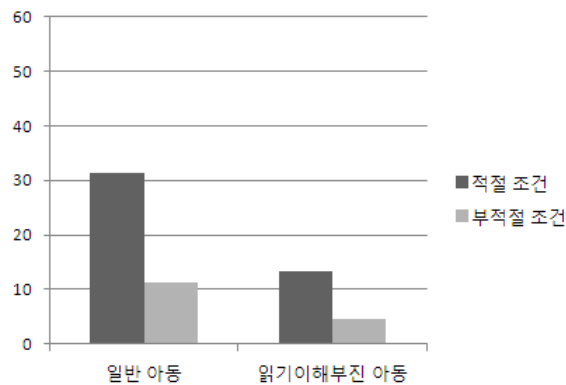
통적으로 모든 아동이 0점을 획득하였다. 본 검사인 의미생성과제에서 나타난 문장 맥락 조건에 따른 두 집단의 수행을 기술 통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집단 간 문장 맥락 조건에 따른 의미생성과제 수행 결과

	일반 아동 (n=16)		읽기이해부진 아동 (n=14)	
	M	SD	M	SD
적절 조건	31.38	5.49	13.36	5.83
부적절 조건	11.38	3.74	4.71	3.81

\*총점 60

이에 대한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 $F_{(1,28)} = 66.250, p < .001$ )와 맥락 조건의 주효과( $F_{(1,28)} = 259.403, p < .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집단과 맥락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_{(1,28)} = 40.783, p < .001$ ). 즉, 읽기이해부진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수행이 저조하였던 한편, 두 집단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부적절 맥락 조건에서 더 큰 어려움을 보였으나, 일반 아동 집단에서 조건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에 비해 읽기이해부진 아동 집단에서는 적절 조건과 부적절 조건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그림 2>).



<그림 2> 집단 간 맥락 조건에 따른 의미생성과제 수행 점수

한편, 문장 맥락 조건에 따른 한자 합성어 의미생성과제에서 집단 간 획득한 점수 유형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보고자 추가적으로 적절한 응답의 총량 중 획득 점수 별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집단과 문장 맥락 조건의 상호작용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표 6>). 앞서 언급한 결과와 같이 두 아동 집단 모두 부적절 조건보다 적절 조건에서 높은 총점을 획득하였으나 획득 점수의 분포는 상이하였는데, 특히 적절 조건에서 한자 합성어의 형태소 두 개의 의미를 정확히 기술

하여 3점을 획득한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아동 집단이 39.16%인데 비해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7.55%에 불과하였다. 이 같은 수치는 일반 아동이 주어진 맥락을 적절히 활용하여 희소 한자의 형태소를 분석하고 합성어 의미 유추에 도달한 반면,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부분적인 맥락 정보만 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표 6〉 의미생성과제 정반응 중 획득 점수 별 빈도 및 비율(%)

		일반 아동	읽기이해부진 아동
		N (%)	N (%)
적절 조건	3점	6.56 (39.16)	1.00 (7.55)
	2점	1.56 (9.50)	0.43 (3.40)
	1점	8.56 (51.34)	9.50 (89.05)
	합계	16.69 (100)	10.93 (100)
부적절 조건	3점	1.19 (14.85)	0.21 (3.91)
	2점	0.50 (7.52)	0.29 (3.97)
	1점	6.94 (77.63)	3.50 (92.12)
	합계	8.63 (100)	4.00 (100)

\*N = 조건 별 20개 시행 중 해당 점수를 획득한 정반응 문항의 개수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맥락 조건에 따라 희소한 한자 합성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형태소 인식 및 문장 맥락 활용이 한자 합성어의 의미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논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적절 조건과 부적절 조건 모두에서 한자 합성어 의미 이해에 어려움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배성봉 등(2016)에서 형태소 인식 능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희소한 한자 합성어 학습에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는 보고된 바에 비추어 볼 때, 읽기이해부진 아동이 지닌 제한된 형태소 인식 능력으로 인해 다형태소로 이루어진 희소 한자 합성어의 뜻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읽기이해부진 아동이 지닌 형태소 인식 능력의 결함으로 합성어 이해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며 (Carlisle, 2010; Deacon et al., 2014; Kuo & Anderson, 2006), 이러한 결함은 고학년 교과과정

및 일상생활에서 확장되는 합성어 단어들을 소화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적절 맥락 조건에서 부적절 맥락 조건보다 의미생성과제 수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장 내에서 희소한 한자 합성어의 형태소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적절한 맥락이 주어지면 아동은 이를 활용하여 새롭고 낯선 어휘의 뜻을 산출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채현식(2003)은 유추(analogy)를 유사성에 기초한 추론(similarity-based reasoning)이라고 설명하면서, 합성어의 구성 성분은 다양한 의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나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는 독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합성어를 이루는 형태소 간의 관계를 명시할 서술어의 역할이 단어 자체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해당 단어가 사용된 문맥과 독자의 심성어휘집을 토대로 한 해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과제에 도입한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한자 합성어의 분리는 심성어휘집의 의미 정보가 하향적으로 형태소 처리에 관여할 것으로 간주되기에, 문장 맥락의 활용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배성봉, 이동훈, 2017).

셋째, 다만 집단과 맥락 조건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살펴보았을 때 맥락을 활용하는 특성은 두 집단에서 상이하였다. 읽기이해부진 아동들은 적절한 문장 맥락이 주어진 경우에도 일반 아동들이 부적절한 맥락에서 응답한 수준의 수행을 보이는데 그쳤으며, 부적절한 맥락 조건에서는 유효한 응답이 극히 드물었다. 또한 정반응 중 획득 점수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을 때 읽기부진 아동의 경우 적절한 문장 맥락이 주어진 경우에도 부분 점수만을 획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비록 일반 아동과 흡사한 정도는 아니지만 읽기부진 아동 또한 적절한 문장 맥락이 주어진다면 낯선 합성어를 접하였을 때 부분적이나마 형태소 분석과 의미 유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는데 있다.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어진 맥락 활용 자체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박은주, 황민아, 2018; 임연순 등, 2019), 다른 한편으로는 문맥을 활용하는 전략을 지도하거나 목표 어휘를 다행한 문맥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휘 지식의 질적 향상과 읽기 이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제안도 있다(박선희, 김애화, 2018; 황민아, 2020). 추후에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어떠한 맥락 정보가 이들의 형태소 인식 능력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어휘 학습 및 읽기이해 성취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모색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는데, 우선 표본 수가 크지 않고 각 집단의 학년 및 성별 비율에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연구 과제를 제작함에 있어 대학생이 참여한 선행 연구의 한자어 목록을 참고하면서 가급적 객관적 근거 자료에 입각하여 초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수준의 한자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한자 형태소의 실제적 사용 빈도나 아동 개인의 한자 지식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을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경우 과제 수행에 필수로 요구되는 인지기능과 읽기기술을 기준으로 참가자를 선별하였으나 형태소 인식 능력의 사용 및 문장 맥락의 활용에 다양한 언어 요소들이 기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찰과 탐색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

가 형태소 인식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타 언어장애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여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한자 합성어 의미 이해에 형태소 인식 능력과 주변 문장 맥락의 활용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학령기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구어뿐 아니라 학습을 위한 문어의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며, 그 중에서도 읽기는 학업을 성취하고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학령기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되어야 한다. 아울러 고유어 못지않게 국어 및 읽기 교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자 합성어의 경우 상당수의 개념어를 포괄하며, ‘생각하다’와 같은 하나의 고유어에 ‘사유하다, 사고하다, 사색하다’ 등 다수의 한자 합성어가 대응됨으로써 어휘 학습의 확장에 유용한 측면을 가진다(민현식 등, 2003). 형태소 분석과 문장 맥락 활용의 연계는 비단 한자 합성어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어휘를 습득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데 유용한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 동아.
- 강범모 (2014). 텍스트 맥락과 단어 의미: 잠재의미분석. 언어학, 68, 3-34.
- 김광해 (2008).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 서울: 박이정.
- 김순호, 정경희 (2015). 초등 저학년 읽기학습부진아동의 형태소인식과 읽기능력. 언어치료연구, 24(2), 35-47.
- 김선아, 최소영 (2018). 초등학교 고학년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형태소인식 능력. 언어치료연구, 27(4), 19-30.
- 김애화, 김의정, 유현실, 황민아, 박성희 (2011). 초등학생의 단어인지와 읽기유창성에 대한 예측변인 연구. 초등교육연구, 24(1), 277-303.
- 김애화, 김의정, 황민아, 유현실 (2014). 읽기 성취 및 읽기 인지처리능력 검사(Test of Reading Achievement and Reading Cognitive Processes Ability, RA-RCP). 서울: 학지사.
- 김일병 (2005). 한자 합성어의 구조와 형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8, 319-362.
- 남기심, 고영근 (2007).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서울: 탐출판사.
- 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민현식, 이찬규, 김왕규, 정혜승, 노명희, 박진호, 박재현, 이준석 (2003).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박선희, 김애화 (2018). 문맥 활용 전략을 적용한 어휘교수가 읽기부진아동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총, 34(2), 211-237.

- 박은주, 황민아 (2018). 읽기이해부진아동의 문맥 상황에서의 반의어 이해. *특수교육논총*, 34(1), 93-107.
- 박혜원 (2014).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 2판(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 - Second Edition, K-CTONI-2). 서울: 마인드프레스.
- 배성봉, 이광오, 마스다 히사시 (2016). 새로운 단어의 학습에서 형태소 처리의 영향: 개인차 연구. *인지과학*, 27(2), 303-323.
- 배성봉, 이동훈 (2017). 한자어 형태소 인식력의 개인차가 형태소 접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9(4), 455-462.
- 심 지, 이은주 (2018). 초등학교 3-4학년 읽기이해부진아동의 합성어 의미 처리 특성.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3(2), 288-297.
- 이익섭 (2009). *한국어 문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연순, 고선희, 황민아 (2019). 학령기 읽기이해부진아동의 단어 의미 추론 특성.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4(2), 379-386.
- 정미란 (2009). 초등학교 3-6학년 읽기이해 부진학생의 단어유추. *언어청각장애연구*, 14, 275-287.
- 정민영 (2000). 국어 한자어의 조어 특성. *인문과학연구*, 9(2), 161-185.
- 조남호 (2002).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 국립국어원.
- 조명한, 이정모, 김정오, 신현정, 이광오, 도경수, 이 양, 이현진, 김영진, 김소영, 고성룡, 정혜선 (2014). *언어심리학*. 서울: 학지사.
- 채현식 (2003).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 태학사.
- 한정인, 황민아, 고선희 (2018).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복합명사 처리 특성.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3(1), 74-82.
- 황민아 (2020). 읽기부진 중학생의 다의동사 처리 특성. *특수교육논총*, 36(3), 83-97.
- Amirian, S. M. R., & Momeni, S. (2012). Definition-based Versus Contextualized Vocabulary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2(11), 2302-2307.
- Berninger, V. W., Abbott, R. D., Nagy, W., & Carlisle, J. F. (2010). Growth in phonological, orthographic, and morphological awareness in grades 1 to 6.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9(2), 141-163.
- Cain, K., & Oakhill, J. (2006). Profiles of children with specific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4), 683-696.
- Carlisle, J. F. (2000). Awareness of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morphologically complex words: Impact on reading. *Reading and writing*, 12(3), 169-190.
- Carlisle, J. F. (2010). Effects of instruction in morphological awareness on literacy achievement: An integrative review. *Reading research quarterly*, 45(4), 464-487.

- Carlisle, J. F. (1995). Morphological awareness and early reading achievement. In: L.B. Feldman (ed.), *Morphological aspects of language processing* (pp.189 - 209). Hillsdale, NJ: Erlbaum.
- De Groot, A. M. B., & Keijzer, R. (2000). What is hard to learn is easy to forget: The roles of word concreteness, cognate status, and word frequency in foreign language vocabulary learning and forgetting. *Language learning*, 50(1), 1-56.
- Deacon, S. H., Kieffer, M. J., & Laroche, A. (2014). The relation between morphological awareness and reading comprehension: Evidence from mediation and longitudinal models.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18(6), 432-451.
- Deacon, S. H., & Kirby, J. R. (2004). Morphological awareness: Just “more phonological?” The roles of morphological and phonological awareness in reading development. *Applied psycholinguistics*, 25(2), 223-238.
- Jannedy, S., Poletto, R., & Weldon, T. L. (Eds.). (1994). *Language files: Materials for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linguistic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Kuo, L. J., & Anderson, R. C. (2006). Morphological awareness and learning to read: A cross-language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41(3), 161-180.
- Sternberg, R. J. (1987). Most vocabulary is learned from context. In M. G. McKeown & M. E. Curtis (Eds.), *The nature of vocabulary acquisition* (p. 89-10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tothard, S. E., & Hulme, C. (1992).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in children. *Reading and writing*, 4(3), 245-256.
- Wolter, J. A., Wood, A. & D'zatko, K. W. (2009). The influence of morphological awareness on the literacy development of first-grade childre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40(3), 1-13.



Abstract

---

## Characteristics of Poor Comprehenders' Understanding of Han-ja Compound Words Using Sentence Context<sup>\*</sup>

Lee, Yu Ri<sup>\*\*</sup> (Haneul center for Developmental Support & Counseling)

Choi, So Young<sup>\*\*\*</sup> (Dankook University)

**Purpose:** At school age, it is necessary to acquire many morphologically complex words, and at higher grades, inferentiall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unfamiliar words in the context of a sentence is requir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aged poor comprehenders' understanding of unfamiliar Han-ja compound words using sentence context. **Metho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0 elementary school fifth- and sixth graders, comprising 14 children with poor comprehension and 16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The meaning generation task used in this study was a method of inferring the meaning of new and unfamiliar Han-ja compound words according to the suggested sentence context. The contexts were of two kinds: contexts appropriate for inferring the meaning of each morpheme and; contexts not appropriate for the same. **Results:**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performed significantly lower in both contextual conditions than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In both groups, measured performance on the semantic generation tasks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inappropriate condition. Moreover, the interaction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lying that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used limited contextual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inferring the meaning of Han-ja compound words.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data showing that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were able to infer meaning using limited sentence context despite their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Han-ja compound words. Based on this study's findings, exploration of intervention strategies and educational methods using context is suggested for more efficient vocabulary acquisi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improvement.

Key words : poor comprehenders, Han-ja, compound word, context

게재 신청일 : 2022. 10. 05

수정 제출일 : 2022. 10. 26

게재 확정일 : 2022. 11. 06

---

<sup>\*</sup> This article was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Dankook University (2020).

<sup>\*\*</sup> First author

<sup>\*\*\*</sup> Corresponding author (syc529@dankook.ac.kr)